

<論說>

# 大田講習有感

白 龍 基

지난 3月 30日 31日 兩日間 大田에서 大韓獸醫師會 主催의 全國臨床獸醫師講習會에 參席할 機會가 있어 어느 때의 講習會 보다 有益하게 500餘名의 獸醫師들이 一堂에 모여 感銘깊게 受講하게 되어 기쁨이 充滿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機會를 맞이 할적 마다 우리가 感得하게 되는것은 우리 自身들의 地位向上이란 課題이다. 當初의 出發點이 臨床獸醫師로서 出發을 하여 健全한 施療技術과 完備된 家畜病院을 營爲하면서 畜産人 全體의 衆望의 對象으로서 君臨하고 계신분도 있겠지만 多大數의 人士들이 獸醫師의 看板을 가지고 公務員 其他의 職에 있다가 人生末路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니 아무 使命感없이 公開業獸醫라는 名色을 띄고 人生黃昏의 서글픈 길을 걷고 있음을 불적에 누구나 寒心하고도 自嘆을 禁치 못하겠다. 이러고서야 어찌 우리들의 地位를 社會人이 알아줄까닭이 있겠느냐 말이다. 最終日에 農林部 次官補의 激勵辭 가운데 銘心하기 보다 창피할 程度의 말씀이 있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恒常 社會의 地位向上을 임버릇 처럼 외치고 있고 또 애써서 여러분들의 社會의地位를 保障하여 주고 싶지만 到底히 肯定이 가지 않는 것은 여러분들의 唯一한 學術誌요 機關誌인 獸醫界誌하나가 自體의 손으로 發刊되지 못하고 國庫에 依存하고 있다는 現實을 불적에 얼마나 여

러 분을 自身들의 來界의 發展을 위하여 憧憬하고 研修하고 開拓하려고 하는 精神에 充滿하고 있느냐 하는 問題點에 果然疑問符를 찍지 아니할 수 없다는 平凡的 이면서 가시돌린 말이 었던 것이다. 그 말을 듣는순간 귀주명에라도 들어가고 싶은 自責感을 느끼게 되었다. 果然 그러하다. 우리는 앉으면 우리들의 活路를 찾것만 우리 스스로가 自己 自身을 鍛鍊하고 日就月將되는 科學에 對應할 能力의 所有者로서 研修하고 있느냐하면 對答할 者가 몇이나 될까? 우리들의 有一無二의 獸醫界誌 하나를 消化 못하면서 地位向上 만을 願하고 있다는 自體가 썩스러운 立場이 되지 아니할까? 오늘날 美國이 復興하였다고 하지만 英國에서 건너간 淸教徒들의 血鬪가 없었던들 어찌 오늘을 期約하리오 우리들은 모름지기 淸教徒의 精神으로써 自處하지 말고 自己를 開拓하는 者가 되어야 하겠다. 우리들의 全存在 全所有 마음의 良識을 本義務에 直結시킬 적에 向上도 있고 發展도 있으며 品位도 維持될 것이다. 우리의 世代는 버림받은 世代가 될 망정 將來를 期約하고 社會人에게 우리의 存在를 認識시키면서 一般人으로 하여금 우리의 位置를 憧憬할 수 있는 새 世代의 創造主가 되기를 祝願한다.

<筆者=全羅北道獸醫師會長>

—(101頁에서 계속)—

지 않도록 防止해야 한다. 卽 모든 難關을 무릅쓰고 危險 期間에는 安全한 作物을 마련 하든가 혹은 監禁시켜서 짚이나 “싸이리지”(Silage)를 먹여야 한다. 그러나 農夫들이 不必要한 경보로 注意策을 取해야 하는 경우가 繼續 減少할 希望이 보이는것 같다. 이는 藎의 急激한 增加에 도움이 되는 氣象條件에 關한 向上된 知識과 芽胞 採集機의 더욱 廣範圍한 使用, 그리고 여름부터 가을의 芽胞數를 繼續 記錄해 두기 爲한 새로 考案된 다른 方法을 使用 함으로서 이루어 질다.

이러한 措置는 이미 濕疹이 發生하기 쉬운 여러 地域에서 取해 졌다. 芽胞數가 많은 것으로 알려 졌을때 따뜻한 비가 올 豫報를 내었으면 얼마간의 確信을 가

지고 積極的인 경보를 낼 수 있다. 그러나 芽胞數를 解析할 때는 다음 세가지 理由로 細心한 注意가 必要하다.

- a) 芽胞 採集機 標準化의 困難性.
- b) 芽胞 集團의 代表的인 標本 採取의 問題.
- c) 芽胞數는 다만 有毒性 水準과의 關係가 약간 있다고 보는 程度이다.

現在는 約 40여개의 “地方 顔面濕疹 警報 委員會”가 農林部를 通하여 氣象機構로부터 氣象情報를 받아 農夫들에게 警報를 發한다. 그리고 地方에서 觀測한 草上 最低溫度, 降水量, 可能하면 표준이 되는 牧場地域으로 부터의 芽胞數를 蒐集하여 이를 補充한다.

<論 說>

# 獸醫師前途의 多樣性

徐 富 甲

## 1. 緒 論

巷間에 우리 獸醫師들의 窺見을 올리는 안타깝고도 가슴 아프며 또 氣가 막히는 소리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過剩獸醫師」라는 點일 것이다,

果然 우리 나라에는 獸醫師가 過剩狀態인가? 하는 點에 對하여서 나는 곰곰히 생각해 본 적이 한 두번이 아니다. 그리고 機會 있을 때마다 이 問題에 對하여서 同業人들과도 談論해본 일도 許多하지만 그때마다 모두 神通한 結論을 얻을 수 없었다는것이 매우 서운하며, 그렇다고 해서 그저 그렇거니 하고 아주 諦念해버릴 수도 없는 深刻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모름지기 사람 마다 自己 職業에 滿足할 사람은 없겠으며, 또한 그 反面 自己가 工夫研磨한 學問에 對하여 蔑視 賤待 받기를 즐길 사람도 없을 줄 안다. 이러한 二律背反의인 思考에서 허메이고 있는것이 곧 現代 우리 獸醫師들 大部分이 갖는 心情일 게다.

훌륭히 鍊磨된 獸醫技術을 가지고도 알맞은 職業을 求하지 못한 채 彷徨하는 同門人들을 接할 때 마다 社會的인 先輩로서 아니 獸醫師의 한 사람으로서도 責任感을 느끼는 同時에, 한便 未安한 생각이 먼저 앞을 서고 있으니 이 어찌 된 일일까? 그렇다고 무슨 倖倖한 수가 있는것도 아닌데…….

따라서 나를 包含한 모든 既成 獸醫師들이 이러한 難題를 놓고 다 같이 한번 反省해 보아야 할 點임을 銘心하자는 것이다.

생각컨대 現在 우리 나라의 形便으로 보아 飽和狀態가 아닌 學科는 別로 찾아 볼래야 찾아 낼 수가 없을진대, 萬一 唯獨 獸醫學徒만이 當面한 事實이 樣으로 針小樨大하여 曰可 曰否하는 同門이 왔다면 좀 더 前後를 생각하여 言行에 慎重을 期해야 될것은 當然한 일이라 생각 된다.

우리 獸醫學徒들의 活路가 現 時點에서 볼때 그리 넓지 못하다는 느낌을 주고 있는것 만은 事實이나, 그러나 이것은 決코 國家 全體의 行政面에 나타난 盲點과 欠陥 그리고 運營上의 貧弱 때문이지 過剩狀態 그 自體가 由緣이라고 斷定하기에는 너무나도 輕率한 일

이 아닐 수 없다.

가령 우리 나라 行政構造가 美國과 유럽을 비롯하여 가까운 이웃 日本의 行政規模처럼 有機的이고 多樣性이며 넓은 視野로서 確立되어 있다고 假定해 보자! 왜 獸醫師가 남아 돌아 간다고 失望만 하게 될 것이며 또 우리 나라와 같은 社會的인 矛盾이나 奇現象도 派生될 理 萬無한것은 明若觀火한 일이 아니겠는가?

過去에 第三者가 客觀的인 立場에서 評價하던 그러한 獸醫師는 이미 있을 수 없고, 또는 家畜病院을 開業하는 것만이 獸醫師인데 앞으로 輩出될 獸醫師가 모두 開業을 한다면 結局 公開業 獸醫師의 沙汰를 免치 못하여 共滅에 빠지고 말것이 아니냐? 하는 單純한 憂鬱心을 갖는 이들도 있는듯 듣고 있으나, 이것은 한낱 좁은 視野로서 내다본 淺識한 所致에 起因되는 것이라하여 一笑에 붙여 넘길 수 밖에 없다.

獸醫師란 비단 開業만이 主業이 아니요, 또한 개(犬)만을 治療하는것이 獸醫師가 아닌것도 事實이다. 即 獸醫學은 豫防醫學을 못도로 하는 醫療科學의 一分野로서 各家畜의 飼養繁殖에 따르는 豫防施策을 爲主로 公衆衛生 및 環境衛生이라는 社會的인 與件에 貢獻하는 同時에, 國民保健에 寄與하는바 實로 그 活動舞臺가 매우 廣闊하다는것을 새삼 自負함이 至當할 것이다.

即 모든 사람이 日常食으로 하는 各種 통조림을 비롯하여 畜産加工物과 魚肉, 野菜 其他 清涼飲料水等에 이르기 까지 大部分의 食品에 對한 專門的이고 科學的인 檢査를 거친 다음 그의 安全性을 確保 維持하는데 貢獻하는것이 또한 世界 趨勢로 보아 우리들에게 付與되어야 할 當然한 任務요, 또 職分임은 二言을 要하지 않는 바이다.

한편 100餘種에 達하는 人獸共通 傳染病은 그 누구의 힘으로 防疫하여 貴重한 人命을 保護할 것인가를 생각 할 때는 實로 더욱 兩肩이 무거워짐을 새삼 覺속깊이느끼게 된다.

以上과 같은 여러가지 矛盾性과 重要性에 비추어, 우리들과 우리 後輩들의 앞길을 鼓舞 開拓하는 뜻에서 다음 몇가지를 分析하여 平素의 私見을 밝히고저 하는

바이다.

## 2. 人的 資源問題

우리 나라의 獸醫行政을 正常的으로 圓滿하게 遂行 할려면, 現在의 人口密度나 其他 行政區域의 與件에 따라 參酌하여 全國의 面事務所까지 獸醫 職務者를 配置해야 될 絕對 需給要員 數를 約 4,600名 가량으로 듣고 있다. 그런데 農林部에 登錄된 總 獸醫師 數는 大略 2,000名을 上廻하리라고 하니 이 사람들이 모두 職場을 갖는것으로 看做하여 減算하더라도 나머지 約 2,500~2,600名 가량은 不足한 셈이 될 것이다.

한편 文教部에서 策定한 1年間の 獸醫學士獸醫師 總 輩出 人員을 年 160名 程度라고 하니 前記한 要 補充 人員인 2,600名에 對한 消費 換算에 나타난 補充 年限은 16年間(2,600÷160=16)이나 걸린다는 計算이 나온다. 이것으로 보아 結局은 16年間을 所要해야만 비로소 目的하는 需給要員을 確保하여 先進 各國에 比肩할 수 있는 獸醫行政이 確立될것은 勿論이고, 不然이면 不可避 16年以上의 落後를 自招하리라는 理論이 선다.

또한 4,600名의 獸醫師가 모두 補職이 되었다고 假定하더라도 人力交替 年限을 加算할 때, 世界 共通의 으로 每人 當 20年이라고 하니 20年마다 누군가가 1回式 退職 對象으로 策定되어야 할것이고(但 退職後 充分한 社會保障이 確立되어 있는것으로 假定함), 그 後라도 다시 이것을 補充한다면 몰라도 그렇지 못할 때에는 그런 일이 累積되어 10年後에는 그 總數의 半數인 2,300名으로 줄어들 것이며, 더욱 나아가 20年後에 가서는 結局 한 사람의 獸醫要員도 남아 있지 못하게 될것은 必然의인 事實이 아니겠는가?

以上과 같은 論法으로 따져 본다면 그 交替率은 年 5%인 230名이 必要하다고 反證된다. 따라서 現在 輩出되고 있는 年 160名의 獸醫師는 每年 通例의 均 一하게 消費될 可能性도 없지 않으리라. ....

그러므로 外國과 같은 行政職制의 確立만 될 수 있다면 決코 現存 獸醫師가 過剩狀態에 놓여 있다고 速斷을 하지 못 할것으로 나는 믿는다. 要是 우리들 스스로가 能動的으로 일거리를 爭取하려는 總力的인 努力이 오히려 必要한 것이다.

## 3. 獸醫師의 職分問題

내가 알고 있는 限으로서는 外國 獸醫師의 生活 安全度는 그 밖의 다른 職分의 그것 보다 못지 않다고 듣고 있다. 特別 美國과 같은 나라에서는 더욱 그러하고, 이들은 開業 獸醫師로서의 尊敬과 信望 그리고 極

盡한 待遇를 받는것은 勿論이요. 公衆衛生과 國民保健 關係 職務를 비롯하여 家畜의 防疫과 各種 衛生檢査에 있어서도 數的으로나 質的으로도 相當히 優勢한 職責과 位置를 차지 하고 있다니 그 얼마나 부러운 일이라.....

여기서 特別 地理的인 與件이나 其他가 우리 나라 實情에 가까운 이웃 日本의 例를 보더라도, 登錄된 獸醫師의 總數 19,000名 中 獸醫事業에 奉仕하는 사람은 約 17,000名가량 되고, 그 中國家公務員과 公衆衛生 關係者만 하여도 約 半數인 7,700名이며, 民間 團體와 研究機關에 從事하는 사람 또한 約 5,000名이고, 開業 獸醫師 數는 約 4,300名이라고 하니, 2,600萬 人口를 자랑하는 우리나라보다 거의 4倍의 人口를 가진 日本과를 比較할 때, 人口別 獸醫師의 比重은 實로 2.5倍 가량이 우리 나라가 不足함을 如實히 알게 된다. 이런 見地에서 分析하더라도 現存 韓國 獸醫師의 數는 決코 많지 않다는 事實을 여기서도 再三 確認할 수 있다고 믿는 바이다.

表1. <獸醫師 對 人口比率>

國名	登錄된 獸醫師 總數 (名)	總人口(名)	獸醫師 1名 當 人口比	備考
韓國	2,000	26,000,000	13,000	
日本	19,000	100,000,000	5,000	※

※ 1962年 12月末, 日本 獸醫畜產新報, No. 341

上記한 表1.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日本은 約 5,000名 人口當 1名 的인 獸醫師를 保有하고 있는 形便인데 우리 나라의 獸醫師는 約 2.5倍에 該當되는 負擔을 지니고 있으니, 이것은 곧 日本에서 사람에 對한 獸醫師들의 保健衛生上의 重要性을 反證해 주고 있는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한편 日本 保健省의 食品衛生 監視員 總數를 보아도 約 7,500名인데, 그 中 半數가 넘는 3,800名이 獸醫師들로서 充當되고 있음은 勿論이고, 各 保健所의 衛生 課長과 係長級에도 거의 다 獸醫師들이 登用되고 있음을 볼때 다시 日本이 얼마나 獸醫師에 對한 信賴와 責任있는 技術的인 門戶를 開放하고 있는지를 엿 볼수 있을 것이다.

생각컨대 現在 우리 나라 獸醫師는 過去와 달리 帝政 殖民政策 時代의 未熟하고 낡은 技術과 知識을 打破하여 훨씬 進歩改良된 學術을 土臺로한 現代科學의 尖端을 걷고 있는 것이 事實인 진대 무엇을 주저할 것이며 또 어찌서 保社部에서는 이러한 技術人材의 登用을 許諾하고 있지 않은 것인지 아무리 생각하여도 도

무지 理解가 가지 않는다. 좀더 雅量있고 廣範한 門戶를 開放하여 早速한 時日內에 期必코 이러한 問題가 解決되어, 國家的으로나 社會福祉 向上에 뜻있는 結果가 맺어 지기를 바라는 마음 懇切하다.

表2. 日本 保健所 勤務의 衛生關係職員의 資格과 業務 內譯表

{1961年 11月 15日  
{日本獸醫畜產新報 No. 315 參照}}

資格別	保健所 衛生課長 (名)	課長以外 的 實務者 (名)	食品衛生 監視員 (名)	環境衛生 監視員 (名)	計 (名)
※ 獸醫師	266	1,762	1,402	360	3,790
藥劑師	160	743	563	180	1,646
醫師及 齒醫師	30	39	39	0	108
營養師	115	944	94	508	2,003
合 計	571	3,488	2,093	1,390	7,547

即 科學文明이 發達되어 함에 따라서 畜產物의 供給量은 增加해 질 것이고, 그에 따라서 自然的으로 家畜數도 增加 되어야만 될 것이므로 이에 隨伴하여 獸醫學의 發展과 應用面도 社會的인 背景과 要求에 呼應하여 廣範해져야 하는 反面에 重大한 責任을 지니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서 다시 家畜數에 對한 獸醫師의 比率를 分析해 보고, 亦是 獸醫師의 人的 緊要不可缺性을 指摘하는 바이다.

表3. <家畜數에 對한 獸醫師數>

區 別	現在 獸醫師數 (名)	大·中 家畜 總數 (頭)	獸醫師 1名當 家畜數 (頭)	年度別
韓 國	2,000	2,300,000	= 1,150	1962年 12月
日 本	19,000	5,542,000	= 291	1961年 1月

#### 4. 國民의 食生活樣式과 保健問題

무릇 모든 사람은 來日을 爲하여 또 來日 보다도 遼遠한 後日을 爲하여 幸福해 지고 싶어 함은 當然한 希求이며 또 本能일 것이다.

人類社會에서 가장 不幸한 것이 있다면 두말 할 것 없이 「疾病」일 것이며, 異狀健康으로 短命해져서 結局은 보다 적은 享樂을 取하게 될 것이므로 人間社會에는 이를 爲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許多한 生存競爭이 攪頭되게 마련이다. 이러한 不幸의 原因中 가장 重要한 것은 무어니 무어니 해도 國民의 食生活 樣式에 그 一大要因이 內包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마땅하다.

이러한 見地에서 볼때 「獸醫學」이라는 學問이 直接 間接으로 國民保健과 人類社會의 福祉를 爲하여 如何한 影響을 미치고 있는지를 다음에 論證함으로써, 萬

人에게 새로운 啓蒙과 覺醒을 促求하고자 한다.

歐美人의 食生活를 살펴 보면 主로 牛乳, 肉類, 鷄卵等의 動物性 食品을 主食으로하고 食糧과 若干의 菜蔬와 같은 植物性인 食品은 附隨食品으로 攝取하고 있다. 1例를 들자면 歐美人의 1日量 食品을 分析해 보니 平均的으로 牛乳 600g, 肉類 250g, 鷄卵 1個 그리고 食糧 따위의 穀類 200g를 攝取하는데 比하여 우리 나라 國民은 그 大多數가 옛부터 現今에 이르기 까지도 炭水化合物을 主成分으로 하는 各種 植物性 食品을 主食으로 하고 있는 반면 蛋白質 成分을 含有한 動物性 食品을 攝取하는 일이라고는 年中을 通하여 그리 흔하지 못하며 또 이러한 事實은 上記한 歐美人에 比하여 볼 때 너무나도 隔世之感을 금치 못하는 바이다.

本來 한 사람이 1日에, 攝取해야만 될 生命 維持를 爲한 食品量으로서의 적어도 蛋白質이 100g, 脂肪을 50g, 含水灰素를 300g가량 먹어야 하겠고, 特히 여기 에다 活動을 加重한다면 더욱 그 以上の 營養分을 攝取할 必要가 있는 것이다.

이렇듯이 食生活의 樣式과 健康과는 密接한 關係를 맺고 있으며 그 食品 攝取上의 差異點은, 決局 歐美人 보다 못한 우리 國民들의 健康과 生命을 損傷시키는 結果를 招來하고 말 것이다.

다음 表 4에서 보는 바 이러한 結果가 가져오는 世界 各國人의 平均的 體重과 壽命에는 相當한 差異가 있음을 알 수 있는 까닭으로, 우리 國民들의 食生活은 分明히 改善에 改善을 더 해야만 될 것이다.

表4. <各國人의 平均壽命>

區 別	體重(kg)		身長(cm)		壽命(年)	
	男	女	男	女	男	女
國 名						
韓 國	58.6	53.1	165.8	154.0	57	60
日 本	55.2	49.0	162.0	151.0	63.24	67.6
美 國	65.0	60	166.3	160	66.6	72.7
歐 州	64.4	61	165.1	158	"	"
놀웨이	66.4	61.4	170.0	161.0	69.3	72.7

위의 表가 提示하는 바 東洋人 特히 韓國이나 日本 人의 平均壽命이 歐美人의 그것 보다 짧다는 事實에 甘하여 다시 한번 獸醫師라면 누구나 食生活 問題에 觀心을 갖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 5. 畜產과 食生活과의 關係

農業의 形態는 그 나라의 國民이 攝取하는 食料品의 爲主에 따라 變化가 있는 것이다. 가령 우리 나라와

같이 主穀 食生活를 營爲하는 國家는 그 農業形態 自體도 主穀 農業인 田畜農事를 따르게 될 것이며, 歐美各國과 같이 動物性 食生活이 爲主인 나라에서는 自然 家畜農業 即 畜產 方向을 따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實例로서, 우리 나라에서는 農地의 利用을 主로 穀類 耕作에만 依存하고 있는 反面에 家畜을 飼養하는 飼料 作物과 牧場으로서는 거의 利用 效果가 없는 實情에 比해 보면 歐美各國의 農土는 거의 牧場과 飼料作物 圃場으로 活用되고 있는 것으로서 좋은 對照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이 兩者間에는 그 農業經營面에 있어서도 前述한 바와 基本的인 形態 差異를 招來하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歐美諸國의 農業은 우리 나라와 本質의으로 다른 바가 있어, 다만 家畜을 生産하는 것을 뜻하고 있는 以上 우리 나라 農業의 一部分인 畜產과는 區別되어야 할 것이다. 即 農業이란 語彙는 世界 共通이라 하겠으나 그 內容을 파고 들면 全然 그 뜻이 달라지고 말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畜產」은 歐美諸國에서는 通用되는 일이 적을 것이다.

특히 우리 나라와같이 旣成 耕地面積比가 人口密度에 比하여 훨씬 적은 形에서 開墾事業을 勸獎한다  
表5. <世界各國의 農地面積>

區別	總面積 (1000 km <sup>2</sup> )	可耕面積 (1000ha)	可耕面積對總面積比 (%)	穀類耕作面積 (1000 ha)	穀類耕作面積對可耕面積比 (%)	飼料作物耕作面積對耕地面積比 (%)
韓國	99	3,794	39.3	2,049	54.0	0.1
日本	382	6,028	15.8	5,076	84.2	7.3
美國	7,839	133,385	17.3	379,631	59.7	64.0
英國	243	5,038	21.0	2,181	42.8	—
佛國	551	20,731	37.6	10,469	50.5	—
伊太利	310	13,003	41.9	6,901	53.1	—
西獨	470	—	38.2	—	60.0	39.0
캐나다	9,570	24,096	2.7	79	78.5	—
스웨덴	449	3,746	9.1	41	41.5	—
뉴웨이	323	849	2.8	22	22.4	—
스이스	41	506	12.3	24	23.9	—
벨기	31	1,023	33.5	54	53.5	—
덴마크	43	2,676	62.3	50	50.4	63.0
오스트레리아	8,554	13,191	1.7	50	49.5	—
부라질	8,511	9,295	1.1	57	56.7	—

든가 또는 農業形態를 經濟的, 保健性을 띤 主要 農業으로 變更하지 않는限, 未來 國民의 體力向上이나, 國家의 經濟的 國力涵養은 커녕 永永 後進性과 貧困을 免치 못할 줄로 믿는바 이다.

다음 表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歐美諸國에서는 그 나라에 따라 多少의 差異는 있다 하더라도 國土의 大部分이 耕作地인 그 中60~70%가 牧場 또는 飼料作物을 栽培하기 爲하여 最大限度로 利用되고 있음을 찾아 볼수 있는 것이다.

이 反面 우리 나라 實情을 보면 무릇한 飼料作物 耕作面積도 없으려니와, 얼마 안되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決코 作物圃場인 것 보다는 오히려 牧場面積에 不遜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耕作面積에도 包含되어 있지 않고 林野面積으로 取扱되고 있음은 또한 다른 나라에 比하여 特殊한 差異를 나타내고 있으니, 實로 이러한 不軌道인 矛盾이 또 어디 있으랴?

前述한 바 있듯이 農地利用의 目的性에 있어서 根本的으로 區美地方과 다르기 때문에 飼養되고 있는 家畜數도 自動的으로 相當한 差異가 있음을 充分히 認識하게 될 줄 안다.

다음 表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人口 1,000名에 對한 家畜 單位數로서 證明되듯이 歐美各國은 該當人口의 比에 對하여 거의 半數에 가까운 家畜이 飼養되고 있는 反面에, 그것은 日本의 59頭나 우리 나라의 51頭와는 比較가 안될 만큼 큰 差異를 內包하고 있다.

여기서 느끼는 것은 美國과 「덴마크」같은 나라를 불배 그 만큼 經濟的으로나 產業的으로 餘他國을 凌駕하고

表6. <世界各國의 家畜頭數>

區分	總人口 (萬名)	家畜單位數 (大家畜) (萬頭)	人口 1,000名에 對한 家畜單位數比(頭)
韓國	2,627	136	51
日本	8,927	534	59
美國	16,375	12,164	※ 743
西獨	4,999	1,698	339
佛國	4,343	2,335	537
伊太利	4,801	1,294	269
英國	5,106	1,612	316
스웨덴	726	347	478
덴마크	444	497	※ 1,119
스위스	497	206	414
和蘭	1,075	440	409

있으며, 또 그런 나라는 自他가 共認할 만큼 그 나라 國民의 保健向上에도 直結되는 것으로 判斷을 내리게 되고 同時に 上記한 表 4.와 表5.에서 보는 바와 같은 比例의인 共通點을 또 다시 認定할 수 있을 것이다.

### 6. 獸醫學과 畜産學과의 關係

獸醫學과 畜産學은 그 中 「어떤것이 더 重要하나?」고 묻는 사람이 있다면 이는 마치 「사람은 먹기 爲해서 사는지? 또는 살기 爲해서 먹는지?」를 質問하는 格과 다를 바가 없다.

勿論 嚴密하게 따져 본다면 畜産 分野는 各 家畜의 繁殖과 飼養을 爲主로하여 國家産業 發展과 아울러 國民保健向上에 寄與한일 것이고, 한便 獸醫學 分野는 이와 같은 일들이 圓滿하고도 安全性있게 運營되도록 衛生의인 面을 뒷받침 해주는 使命을 지니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이들 中 어떤 하나가 더 重要하다고는 볼수 없다. 만일에 어떤 하나에 缺陷이 생긴다면 그것은 마치 일에 한쪽 수레바퀴가 빠져 버린 수레로서 밖에 구실을 하지 못 할것은 뻔한 노릇이다. 따라서 이 兩者는 恒時 共存 共榮을 營爲해야만 될 不可分의 宿命的인 使命을 타고난 것으로 보아야 할것인지 모르겠다.

間或 어떤 사람은 獸醫學을 純粹, 學究的인 面으로만 分離할것을 主唱하는 이도 없지 않은 바이다, 이것은 어디 까지나 技業的인 問題를 말하는 것으로 믿고 싶으며, 決코 産業에 直結되는 獸醫分野全能에 걸친 大局의인 見解로서는, 現實情으로 보아 亦是 獸醫와 畜産을 한 系列에 놓고 다루어야 妥當한 일이 아닌가 싶다. 勿論 前述한 바 「아카데미」한 面도 必要하겠으나 終末에 가서는 結局 産業發展上으로나 國家 行政體系上으로도 有安의인 携帶를 뺏지 않을 수 없을것이 아니겠는가? …….

이러한 意味에서 나는, 獸醫 畜産 兩部門의 人들은 다 같이 我田引水格인 偏見을 버리고 大局의인 見地에서의 融和 協助的인 思考方式을 갖어 주었으면 하는 아쉬운 생각에 잠기는 때가 許多하다.

國民의 保健을 向上시키고, 國家 産業經濟의 復興與 期約하는 産業이 畜産이란면, 乳肉物을 비롯한 모든 肉製品 其他 食品을 人類에게 提供해 주는 母體는 다름 아닌 家畜인 것이다. 그리고 家畜은 生物이므로 自然 飼養中에 衛生의인 障害에 逢着하는 境遇가 많으므로 疾病을 發生하게 마련이다. 따라서 이러한 損失을 未然에 防止 乃至는 治療하는것이 우리들 獸醫師의 使命의 一部分이라고 再言하는 바 이겠으나, 換言하자면

獸醫學은 家畜에 對한 生物學이고 또 家畜의 生命現象을 研究하는 科學이라기도 하겠다

오늘 날의 獸醫學은 名實 共히 大端히 科學的인 發展을 거듭하였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漸次 畜産도 安定化된 産業으로서 隆盛해 進것으로 알아야 한다.

여기서 實際로 獸醫學이 畜産에 對하여 如何한 範圍와 程度로서 貢獻되고 있는지를 列擧해 보기로 하자.

- 1) 家畜 傳染病의 豫防.
- 2) 家畜 寄生虫病의 豫防.
- 3) 家畜 榮養障害의 防除.
- 4) 家畜 繁殖障害의 防除.
- 5) 家畜의 環境衛生
- 6) 家畜疾病의 診斷과 治療.

上記한 條項으로 歷歷히 理解되듯이, 獸醫學으로서 畜産을 振興시키는 길이란 實로 廣範한 것으로서 이러한 모든 일들이야 말로 農業形態의 改善, 農業經濟所得의 增進, 國民保健의 向上等等에 있어서 가장 根本的인 使命體임을 再認識하였으리라.

### 7 獸醫學과 國民保健問題

前述한 바 있거니와 獸醫學은 畜産에 貢獻하여 우리 國民들에게 動物性 主食을 提供하고 있지만, 이 밖에도 거기서 產出된 畜産物들이 安全한 食品으로서 國民에게 먹힐 수 있도록 하기 위한 公衆衛生學의 方面에 까지도 貢獻되어야할 性質의 學問이다.

여기서 國民保健에 關係되는 獸醫業務 分野로 들어 보자면 다음과 같다.

- 1) 人獸共通 傳染病의 豫防.
- 2) 人獸共通 寄生虫病의 豫防.
- 3) 食品衛生分野(乳肉衛生檢査)
- 4) 環境衛生(畜産衛生)

따라서 國民 各者가 每日같이 먹고 있는 畜産食品은 勿論, 魚肉, 野菜, 其他 淨涼飲料에 이르기 까지도 모두 獸醫師의 檢査를 畢해야만 安全性을 保證 받게 되어 있다는 現수의 世界的인 趨勢를 再 認識해야 될 것이다.

近來에 들전데, 아직도 地方 到處에는 法的으로 規定된 獸醫師가 아니 다른 分野人이 屠畜檢査의 責任을 지고 있는가 하면 技術者가 아닌 一般 行政要員이 保健所 所管의 衛生監視의 重責을 맡고 있는 곳이 많다 하니, 이러한 일들만이라도 可及的 빨리 現代의 技術者인 獸醫師로 代置시켰으면 하는 생각 또한 懇切하기로 紙面을 通하여 서나마 要路에 다 提言하는 바이다.

—(77頁에 계속)—

을 나쁘게 하거나 어느 種類의 비타민도 파괴된 이 없이 比較的 오래 저장 할수 있다는 것이다”

이 方法은 또한 獸肉이나 野菜에 附着되는 寄生虫이나 虫卵을 쉽게 파괴시키게 된다. 一般的으로 볼때 放射線이 生物에 대한 作用은 下等인 것일수록 抵抗力이 더 強하며 高等 動物일수록 弱하다. 哺乳類에서는 10<sup>8</sup>r 이 致死量이 될수 있으나 昆虫類는 10<sup>5</sup>r 以上 細菌은 10<sup>6</sup>r 以上이 必要한 致死線量이라고 한다.

몇가지 例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1) 牛肉. 完全殺菌線量의 10/1로 放射線을 照射한後 0.5%의 후달산 소다 및 구루타민산소다를 첨가하여 5°C에서 저장하였다더니 3個月 後에도 變化없이 저장할 수 있었다.

(2) 豚肉 : 5,000r의 放射線量을 照射한 것은 그 對照物質보다 貯藏期間이 5배나 延長되었다.

(3) 鷄卵 · 알을 腐敗시키는 것은 “살모넬라菌”으로서 이 菌을 죽이려면 3×10<sup>5</sup>r이면 充分하다. 熱이 없어 蛋白質의 응고가 일어나지 아니 하고 쉽게 殺菌이 된다.

大體로 봐서 水分이 많이 含有되어 있는 果實과 같은 食品의 貯藏에는 이 殺菌法이 아직 큰 效果를 거두지 못하였으나 水分이 比較的 적게 含有된 食品의 貯藏에는 많은 利益을 보이고 있다.

以上에서 대충 放射性同位元素의 獸醫學에의 應用에 對해서 記述 하였으나 이것은 現在까지의 應用例의 一部分에 지나지 않으며 또한 앞으로 더 더욱 더 넓게 應用될 수 있는 可能性이 甚

—(83頁에서 계속)—

### 8. 結 論

以上 여러가지로 言及한 理論은 비단 獸醫學을 工夫 했다는 나 혼자만의 主張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客觀的인 立場에서 보더라도 가장 當然하고도 常識的인 理致가 아닐 수 없다.

우리 獸醫師들은 過去의 不足했던 тал을 벗고, 안으로는 實力向上에 熱中하여 人醫에 뒤 지지 않는 學術的인 背景을 確固히 堅持할 것이며, 밖으로는 人格을 陶冶하여 스스로 萬人에게 尊敬과 信望을 얻기에 心血을 기울여야 할 處地에 놓여 있음을 銘心해야 되었고,

음을 강조하고 싶다.

### IV 結 論

우리나라에도 TRIGA II型의 原子爐가 稼動된 지 이미 해를 거듭하여서 充分하지는 못해도 放射性同位元素를 生産하여 各 研究機關에 供給하고 있으며 最近에는 原子力 醫學研究가 생겨서 27Co<sup>60</sup> 遠隔照射裝置를 비롯하여 여러가지 많은 施設로서 그동안 많은 貢獻을 하고 있다.

또 今年度에는 原子力院에 原子農業研究室이 생기게 되어 r-field를 비롯한 여러가지 施設作業이 現在 進行中인 것으로 듣고 있다. 또 우리나라에서의 放射性同位元素를 利用한 水稻栽培研究는 東南亞地方에 있어 模範이 될 立場에서 活潑히 움직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年次計劃에 따라 原子力 發電所를 設立한다는 消息이 이미 報導되었다.

이로 미루어 멀지않은 將來에 우리네 生活은 原子力에 依하여 根本的인 改革이 일어나리라는 것은 쉽게 짐작이 간다.

原子力은 20世紀의 象徴이며 現代科學의 代名詞이다. 이 原子力의 平和的 利用에 努力을 아끼는 國家는 急速히 落伍者의 立場에서 멀어질 것은 너무나 明白한 事實이다.

위에서 大體로 記述된 바와 같이 原子力 특히 放射性同位元素는 우리 獸醫學의 全般에 걸쳐서 密接한 關係에 놓여 있다. 따라서 우리에게도 이 方面의 知識과 技術이 要請되지만 切實하다.

<筆者=서울大獸醫學科>

同時에 가만히 앉아서 獸醫師의 過剩을 慨歎만 하지 말고, 오히려 우리 스스로가 찾아서 해야 할 모든 獸醫職分의 範圍를 한가지라도 더 爭取 擴充하기에 一心合力하여 數 많은 全體 後輩 獸醫師들의 士氣를 昂揚시키고, 希望에 살 수 있는 路잡이에 앞장 서야 할 것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우리들(獸醫師) 周邊에 얼마던지 있는 各樣 各色의 사람들에게도 前述한 바와 같은 獸醫師의 使命感을 充分히 啓蒙 納得시키는 한편, 아무쪼록 畜産 發展에 貢獻할 수 있는 獸醫師, 國民保健 向上에 寄與할 수 있는 獸醫師가 되기를 自負합니다.

<筆者=서울農業大獸醫學科教授>